

## 학교 진로교육 측면의 자유학기제 효과 분석<sup>1)</sup>

장현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류지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I. 서론

####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 정착 및 확대

-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학교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임(교육부, 2015).
- 자유학기제는 2013년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었으며, 안정적인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교육부, 2017).
- 이에 최근 자유학기제를 다른 학기나 학년으로 확대하여 자유학기의 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등 여러 가지 시도들로 나타나고 있음(강원도교육청, 2017; 경기도교육청, 2017; 교육부,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충청남도교육청, 2017).

1) 이 원고의 분석 결과는 장현진 외(2016)의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 통계 자료를 토대로 The HRD Review의 취지와 원고 서식에 맞게 제시한 것임.

□ **자유학기제로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생 진로탐색 증진을 기대**

-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보다 강화된 학교 진로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유학기는 학교 전반의 교육을 학생의 진로탐색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진로탐색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 진로교육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전반적으로 진로교육과정이 강화된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함(법제처, 2017).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추진될 수 있지만,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미 도입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 진로탐색 및 설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생 진로탐색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함.

□ **자유학기제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측면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필요**

- 자유학기제의 특징이나 확대 추세를 고려하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자유학기제와 연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유학기제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측면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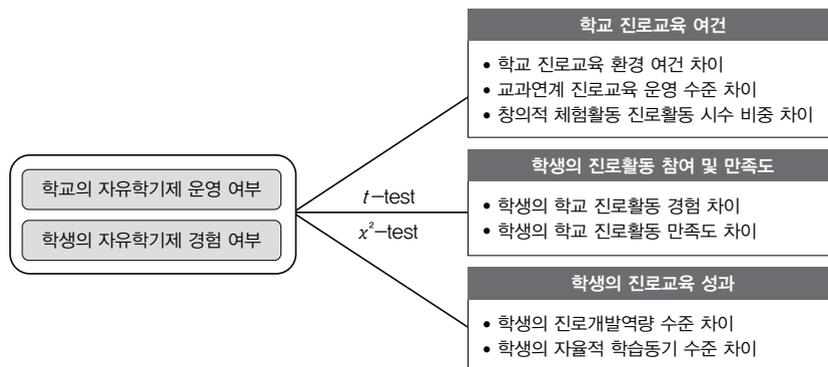
- 자유학기제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진로활동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며,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학교 진로교육 강화 및 학생의 진로설계 지원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II. 분석 설계 및 자료

### 1. 분석 설계

- 본고에서 학교 진로교육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여건 강화, 학교 진로활동의 양적 확대, 학교 진로활동의 질적 제고 그리고 학교 진로교육의 학생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음.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여건이 더 양호해지는가?
  - 둘째,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은 학교 진로활동 경험 및 만족도가 높아지는가?
  - 셋째,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은 진로교육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가?(학생 진로 태도 및 역량 제고)

그림 1. 진로교육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의 효과 분석 설계



## 2. 분석 자료

### □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년) 자료 활용

- (모집단)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는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현황, 성과 및 인식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모집단은 2016년 기준 전국 11,526개 초·중·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고등학교), 학교 관리자, 학생, 학부모로 구성됨.
  - 학생은 해당 학교급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와 수요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1학급을 조사함.
  - ※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은 커리어넷의 진로교육 현황조사 페이지에 탑재된 조사보고서 및 기초통계표를 참조하기 바람.

### □ 분석 항목 및 방법

- (분석 항목)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 문항 가운데 자유학기제의 효과 분석을 위해 관련된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및 중학생(3학년)의 응답 항목을 활용하였음.
  - 학교의 진로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2016년 6월 조사시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를 구분 변수로 활용하였음.
  -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경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진로교육 성과 측면의 분석은 중학생(3학년)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1~2학년 시기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구분 변수로 활용하였음.
  -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내용, 분석 방법 및 조사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내용, 방법 및 조사 대상

연구 문제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조사 대상
1.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여건이 더 양호해지는가?	1)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환경 여건의 차이 * 환경 여건: 연간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부서 설치, 공간 설치	$\chi^2$ -분석	중학교 진로전담 교사
	2)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수준 차이	$\chi^2$ -분석	
	3)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시수 비율의 차이	t-분석	
2.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은 학교 진로활동 경험 및 만족도가 높아지는가?	1)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경험의 차이 * 학교 진로활동: 「진로와 직업」 수업,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등	$\chi^2$ -분석	중학생 (3학년)
	2)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의 차이	t-분석	
3.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은 진로교육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가?	1)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	t-분석	중학생 (3학년)
	2)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자율적 학습동기 수준 차이	t-분석	

- (분석 방법) 본고에서 분석 방법은 기초통계, t-분석,  $\chi^2$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엑셀과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함.

### Ⅲ. 분석 결과

#### 1. 학교 진로교육 여건 강화 측면

##### □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환경 여건의 차이

-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2016년 1학기 조사시점 기준)에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의 환경 여건(진로교육 연간 계획 수립, 진로교육 예산 편성, 진로교육 부서 설치, 진로교육 공간 설치)의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음( $\chi^2$ -분석).
-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진로교육 전용공간을

갖춘 경우가 더 많았음. 나머지 진로교육 환경 여건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치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더 양호한 진로교육 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

-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약 80.0%가 진로교육 공간을 설치하였고, 독립공간으로 설치한 비율은 56.7%이었으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는 64.5%만 진로교육 공간을 설치하였고, 독립공간으로 설치한 비율도 39.2%로 낮은 편임.

표 2.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환경 여건의 차이

(단위: 명, %)

학교 진로교육 환경 여건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		$\chi^2$ (p-value)
		운영	미운영	
진로교육 연간 계획 수립	예	318(99.4)	79(98.8)	0.336 (0.562)
	아니오	2(0.6)	1(1.3)	
	계	320(100.0)	80(100.0)	-
진로교육 예산 편성	예	309(96.6)	76(95)	0.433 (0.511)
	아니오	11(3.4)	4(5.0)	
	계	320(100.0)	80(100.0)	-
진로교육 부서 설치	예	254(79.1)	61(77.2)	0.139 (0.710)
	아니오	67(20.9)	18(22.8)	
	계	321(100)	79(100)	-
진로교육 공간 설치	독립공간 설치	181(56.7)	31(39.2)	10.547** (0.005)
	복합공간 설치	75(23.5)	20(25.3)	
	없음	63(19.7)	28(35.4)	
	계	319(100.0)	79(100.0)	-

주: \*p<.05, \*\*p<.01, \*\*\*p<.001

□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수준 차이

-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라 일반교과 시간에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수업하는 ‘교과 연계 진로교육 실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가 미운영 학교에 비해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더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았음.
  -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직업뿐 아니라 다양한 진로교육 영역과 연계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8.1%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교의 5.1%에 비해 높았음. 교과 관련 직업탐색 활동 및 체험 등 ‘보통 수준으로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비율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는 53.4%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교 39.2%에 비해 높았음.
  - 이처럼 자유학기제 운영은 일반교과에서 진로교육을 연계하는 교과연계 진로교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수준 차이

(단위: 명, %)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수준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		$\chi^2$ (p-value)
	운영	미운영	
높은 수준	26(8.1)	4(5.1)	11.174* (0.011)
보통 수준	171(53.4)	31(39.2)	
낮은 수준	112(35.0)	36(45.6)	
미실시	11(3.4)	8(10.1)	
계	320(100.0)	79(100.0)	-

주: 1) 높은 수준은 “직업뿐 아니라 다양한 진로교육 영역과 연계”, 보통 수준은 “교과 관련 직업탐색 활동 및 체험 등”, 낮은 수준은 “교과 관련 직업소개”를 의미함.

2) \*p<.05, \*\*p<.01, \*\*\*p<.001

### □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시수 비율의 차이

-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의 시수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진로활동’의 비중이 평균 27.0%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 22.5%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생의 진로탐색 증진을 위한 각종 진로활동이 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비율 차이

(단위: 명, %)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	빈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비율		t값 (p-value)
		평균	표준편차	
운영	320	27.0	22.36	1.811 (0.072)
미운영	80	22.5	19.44	

주: 1) 여기서 평균은 창의적 체험활동 전체 시수 대비 진로활동 시수의 비율을 평균한 값임.  
 2) \*p<.05, \*\*p<.01, \*\*\*p<.001

## 2.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 확대 측면

### □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참여 여부 차이

-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각종 학교 진로활동 참여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학교의 진로활동(『진로와 직업』 수업,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에 실제로 참여(경험)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
  -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학교 진로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진로와 직업』 수업’ 91.6%,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85.0%, ‘진로심리검사’ 83.1%, ‘진로상담’ 71.6%, ‘진로체험’ 90.3%, ‘진로동아리’ 58.7% 등으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진로활동 참여 비율 ‘『진로와 직업』 수업’ 87.4%,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79.2%, ‘진로심리검사’ 78.8%, ‘진로상담’ 62.6%, ‘진로체험’ 76.6%, ‘진로동아리’ 36.9% 등에 비해 높았음.
  -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학교 진로활동 유형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chi^2$ (p-value)
		경험	미경험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2,154(91.6)	6,359(87.4)	30,110*** (0.000)
	미참여	198(8.4)	915(12.6)	
	계	2,352(100.0)	7,274(100.0)	-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참여	2,001(85.0)	5,758(79.2)	39,363*** (0.000)
	미참여	352(15.0)	1,516(20.8)	
	계	2,352(100.0)	7,274(100.0)	-
진로심리검사	참여	1,954(83.1)	5,730(78.8)	20,044*** (0.000)
	미참여	399(16.9)	1,543(21.2)	
	계	2,352(100.0)	7,274(100.0)	-
진로상담	참여	1,684(71.6)	4,551(62.6)	63,510*** (0.000)
	미참여	668(28.4)	2,723(37.4)	
	계	2,352(100.0)	7,274(100.0)	-
진로체험	참여	2,124(90.3)	5,571(76.6)	208,388*** (0.000)
	미참여	228(9.7)	1,703(23.4)	
	계	2,352(100.0)	7,274(100.0)	-
진로동아리	참여	1,381(58.7)	2,684(36.9)	346,595*** (0.000)
	미참여	971(41.3)	4,590(63.1)	
	계	2,352(100.0)	7,274(100.0)	-

주: \*p<.05, \*\*p<.01, \*\*\*p<.001

□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차이

- 중학생(3학년)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라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진로와 직업』 수업 만족도와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진로활동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수업 만족도’는 3.81점, ‘교과수업 중 진로 탐색 만족도’는 3.84점으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만족도 3.76점, 3.79 점보다 높았음.
- 하지만,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동아리의 경우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들의 평균 만족도가 자유학기제 미참여 학생들의 만족도에 비해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음.

표 6.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차이

(단위: 명, 점)

학교 진로활동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빈도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t값 (p-value)
			평균	표준편차	
『진로와 직업』 수업	경험	2,154	3.81	0.89	1.985* (0.047)
	미경험	6,358	3.76	0.92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경험	2,001	3.84	0.90	2.115* (0.034)
	미경험	5,757	3.79	0.90	
진로심리검사	경험	1,954	3.89	0.89	1.233 (0.218)
	미경험	5,729	3.86	0.89	
진로상담	경험	1,684	3.89	0.90	0.292 (0.770)
	미경험	4,550	3.90	0.90	
진로체험	경험	2,124	3.92	0.91	1.861 (0.063)
	미경험	5,570	3.88	0.94	
진로동아리	경험	1,381	3.94	0.92	0.158 (0.874)
	미경험	2,684	3.93	0.94	

주: \*p<.05, \*\*p<.01, \*\*\*p<.001

### 3.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 창출 측면

#### □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

-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교육 성취기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음. 이는 진로개발역량 전체 점수와 네 가지 하위 영역별 점수에서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음.

- 이는 자유학기제 경험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미약하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7.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

(단위: 명, 점)

진로개발역량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빈도	진로개발역량 수준		t값 (p-value)
			평균	표준편차	
전체	경험	2,352	3.91	0.69	0.919 (0.358)
	미경험	7,274	3.89	0.66	
1) 자아이해 및 사회성	경험	2,352	4.11	0.73	0.749 (0.454)
	미경험	7,274	4.10	0.71	
2) 직업이해	경험	2,352	3.73	0.80	0.457 (0.647)
	미경험	7,274	3.73	0.78	
3) 진로탐색	경험	2,352	3.94	0.80	0.974 (0.330)
	미경험	7,274	3.92	0.77	
4) 진로설계 및 준비	경험	2,352	3.79	0.84	1.143 (0.253)
	미경험	7,274	3.76	0.80	

주: \*p<.05, \*\*p<.01, \*\*\*p<.001

#### □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자율적 학습동기 수준 차이

○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자율적 학습동기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 학생들에 비하여 자율적 학습동기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자율적 학습동기 점수는 ‘나는 무언가 배우는 것이 즐겁다.’가 3.88점, ‘나는 공부가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가 3.85점이었으나,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각각 3.84점, 3.80점으로 더 낮았음.
-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자율적 학습동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즉, 현재의 학습이 미래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을 인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에 대한 동기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표 8.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자율적 학습동기 수준 차이

(단위: 명, 점)

자율적 학습동기 문항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빈도	자율적 학습동기 수준		t값 (p-value)
			평균	표준편차	
나는 무언가 배우는 것이 즐겁다.	경험	2,352	3.88	0.91	1.723 (0.085)
	미경험	7,274	3.84	0.89	
나는 공부가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	경험	2,352	3.85	0.95	2.124* (0.034)
	미경험	7,274	3.80	0.97	

주: \*p<.05, \*\*p<.01, \*\*\*p<.001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본고에서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의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및 중학생(3학년)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음. 분석에 따른 주요 결과를 학교 진로교육 여건 강화 측면,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경험 확대 측면,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 창출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은 학교 진로교육 환경 여건 및 교육과정 전반에서 진로교육

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 결과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진로교육 전용공간을 설치한 경우가 더 많았음.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가 진로교육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부서 설치 등에 있어서도 더 양호한 상황을 보였음. 아울러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에서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진로활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가 미운영 학교에 비해 더 높아 비교과 활동을 통한 진로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은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 경험을 양적으로 확대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만족도 제고에는 다소 제한적이었음.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 수업,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등 모든 진로활동에 있어서 자유학기제 미경험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음. 하지만, 각 진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만족도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진로와 직업』 수업 만족도와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에 대한 만족도가 자유학기제 미경험 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나머지 진로활동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는 자유학기제가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교과에서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진로활동에 대해서는 양적인 확대는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셋째,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참여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동기의 일부 항목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전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음. 자율적 학습동기 항목(문항) 가운데 ‘나는 공부가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음. 하지만, 자율적 학습동기 항목(문항) 가운데 ‘나는 무언가 배우는 것이 즐겁다.’ 점수와 진로개발역량 영역별 점수에서 수치상으로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해 약간 높거나 동일한 값을 보였지만, 그 값의 차이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음. 이는

자유학기제 경험이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에 다소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이는 앞서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경험의 양적인 확대에는 기여하지만, 학생의 만족도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될 것으로 보임.

## 2. 제언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과 후속 연구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생의 진로탐색 강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이 연구에서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이나 학생의 자유학기제 참여가 학교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진로탐색에 기여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자유학기가 개념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증진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음.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추진 과정을 통해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 둘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학교 진로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통해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탐색 기회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학생의 진로활동 만족도나 유용성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따라서 향후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의 프로그램 내실화와 운영의 질적인 제고를 통해 학생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학교 단계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활성화되고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중학교 전반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체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중학교 단계에서 집중적인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를 도입할 근거가 「진로교육법」에 마련되면서 향후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강화되는 진로교육 활동은 이후 단계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중학교 전반에 체계화된 진로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본고에서는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여부,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등에 따라서 학교 진로교육 여건, 학생의 진로활동 참여 및 만족도, 학생의 진로교육 성과 등에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였음. 이는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이나 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따라서 진로교육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두 변인 간의 분석 결과를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기에는 효과적이었음. 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은 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심층적인 관계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분석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고려한 심층 분석이나 변인의 통제 등을 통한 분석 등 방법론의 다각화 및 심층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2017). 2017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
- 경기도교육청(2017). 2017 경기 자유학년제 추진 계획,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보도자료(2015.11.25.).
- \_\_\_\_\_(2017).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보도자료(2017.09.12.).
- 법제처(2017). 「진로교육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A7%84%EB%A1%9C%EA%B5%90%EC%9C%A1%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17.11.20.)
-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2017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장현진·윤형한·김민경·류지영·이지은·유미애(2016). 2016년도 진로교육센터 운영사업(IV):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 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충청남도교육청(2017). 미래 핵심역량 함양 2017 충남형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